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발행처:경기도교육청
발행부서:미래교육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제 168 호
(2019.10.24.)

복수전공, 부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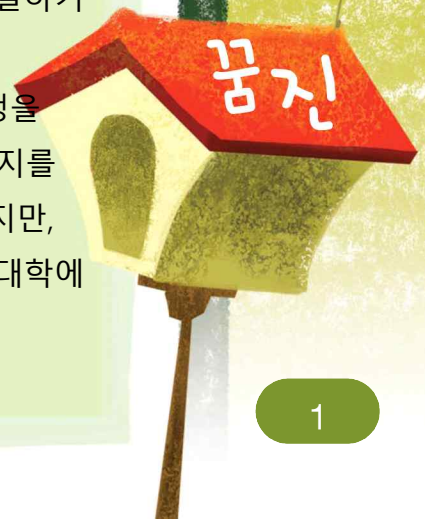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대부분 대학이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학년(또는 3학년)부터 주전공 외 다른 전공을 선택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은 졸업 시 주전공 외 복수전공으로 택한 전공까지 2개의 학사 학위를 받지만, 부전공은 주전공의 1개 학위만 받으며** 졸업장에 '국어국문학과(부전공 영어영문과)' 식으로 표기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복수전공 대신 '이중 전공'이나 '다(중) 전공' 제도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이중 전공은 2개 전공을, 다(중)전공은 2~3개 전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서강대·경희대는 '다전공', 한국외대는 '이중전공', 한양대는 '다중전공' 제도를 운용합니다. 복수 전공과는 달리, 학부와 학과의 제한이 없는 점(의학/약학/사범/예체능 계열 제외)도 큰 차이점입니다.

전과

입학 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이 맞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 변경의 기회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학할 때 선택한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전공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학과에 빈자리가 생길 경우 전과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인기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큼니다.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인 경우에도 면접 또는 다른 평가 요소에 의해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주전공 취득 평점도 중요하겠지만 왜 전과를 해야 하는지를 면접 시험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 전과 제도가 있지만,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전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대학의 학사 안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Q1. 복수전공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대부분 대학의 경우 2학기에서 7학기까지 이수한 재학생이라면 누구라도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신청자가 몰리는 인기 학과는 대학 입학 후의 평점이나 면접, 학업 계획서를 통해 선발하기도 합니다.

Q2. 복수전공(전과)은 아무 학과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과나 간호학과 사범대와 같이 국가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학과의 경우 복수전공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만 복수전공 신청을 받습니다. 예체능 관련학과의 경우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사전 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학과를 제외한다면 복수전공의 기회는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라면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며 인문, 자연계열 간의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Q3. 편입과 복수전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신이 입학한 대학에서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과 달리 '편입학'은 다른 대학으로 학적 자체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입은 4년제 대학 2학년을 마쳤거나 전문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편입과 4년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 유형으로는 군 위탁편입, 실업계 고교 출신자 편입, 특별편입 등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시험을 실시하며,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별도로 치르거나 전공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편입은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거나 2,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후 3학년으로 편입하는 유형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학사편입은 4년제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와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편입보다 학사편입 경쟁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Q4. 심화전공 · 연계전공 · 융합전공 · 자기설계전공은 무엇인가요?

심화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전공 제도입니다.

- (1) **심화전공** : 주전공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전공과목을 정해진 최소 이수 학점보다 12~20학점가량 더 듣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2) **연계전공과 융합전공** : 대학 입시를 통해 모집하는 학과가 아니라, 대학 입학 후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해 별도의 전공을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단일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고,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다(중)전공, 부전공 등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울대, 서울여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 (3) **자기설계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직접 2개 이상의 학과(학부) 교과목을 융합해 구성하는 전공입니다. 전공 설계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으며, 제2·제3의 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신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을 제2·제3의 전공으로 이수했을 때 졸업 시 학위 수여 방식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주전공 학위와 함께 2~3개 학위를 수여하는 곳도 있고, 주전공 학위에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이수 여부를 표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자유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유전공학과는 대학에 입학할 때 주전공을 정하지 않고 학년 진급 후 특정한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설계전공은 자신이 희망하는 어떤 학과에 입학한 후 특정 시기에 학생 스스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본인의 전공으로 이수하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Q6. 실제 대학에서 전공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 연세대학교 연계전공

가. 개설 연계전공 : 한국 및 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 (중국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 (일본학), 유럽지역학, 미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한국 및 동아시아학 (동아시아학),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과학기술과 사회

나. 특징 : 연계전공은 제 1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제 2전공으로 이수 가능함.

(2)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전공

가. 개설 연계전공 : BRICs(브릭스) 융합전공, EU(유럽연합) 융합전공, 동북아 융합전공, 문화콘텐츠학 융합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융합전공, 국가리더 융합전공, 융복합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정보·기록학전공, 광역특화전공,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언어와공학전공, 디지털인문학전공, 지역경제개발협력전공, 보험계리학전공

나. 특징 :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융합전공의 경우 캠퍼스 간 융합전공 이수를 허용 함.

(3) 중앙대학교 자기설계전공

개요 : 학생이 주전공 이외의 전공 교육과정 편성을 직접 설계하여 이수하는 제도

사례1 : 미술사학 자기설계전공

“저의 주전공은 정치외교학입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미술사학이란 이름으로 전공을 왜 만드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전공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외교, 미술문화행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

사례2 : 도시교통정책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통하여 입체적 시각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 도시교통정책 자기설계전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부전공 등 다른 전공으로는 심도있는 논의와 제가 원하는 전공간의 융합이 어렵다는 생각에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한국외대, 중앙대 홈페이지에서 발췌)

